

문화계소식

‘절제된 욕망’ 수묵으로 표현

송수남 大作展 ... 28일까지 공평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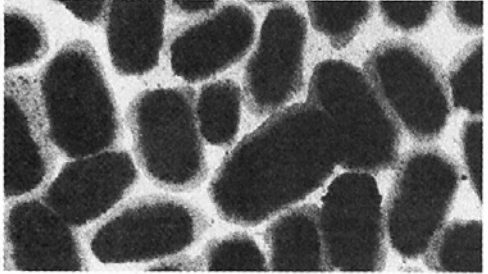
‘무던 쟁기로 일구어나가는 발길이 같이 덩달아하면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기 확인’

미술평론가 오수광씨는 친구인 화가 송수남씨의 작품을 이렇게 평하고 있다. 수묵화의 길을 고집스레 걷고 있는 송수남씨가 지난 15일~28일까지의 일정으로 공평아트센터에서 대작들을 내놓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묵화의 기본은 주제와 간결이 주는 미학에서 시작된다”는 송씨는 이번 전시에서도 어김없이 절제된 욕망들을 수묵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 최근 화보집 <한국화의 길>과 에세이집 <고향에 두고 온 자연>을 펴내기도 했다.

동방불교대 졸업작품전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과 졸업생들의 졸업작품전이 20일~28일까지 서초동 다보성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전에는 전통불화와 창작불화로 나누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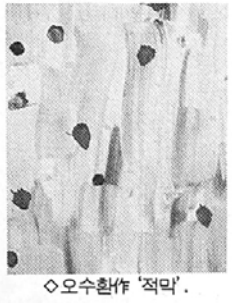


◇송수남작 '붓의 놀림'.

무의식의 침묵 화폭에 담다

오수환씨 개인전 ... 25일까지 가나화랑

자신의 그림세계를 무의식과 침묵으로 보여주는 오수환씨(서울여대교수)가 14번째 개인전을 서울 관훈동 가나화랑에서 갖고 있다(11~25일). 아크릴, 유채 등으로 캔버스 가득 적막한 마음을 담은 '적막' 시리즈들이 주를 이룬 이 전시회에서 관람자들은 무의식 속에서 분출된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역동성은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무(無)의 세계로 통하고 있다. 특히 '공(空)의 정신적 현실'로 해석되는 '국



◇오수환작 '적막'.

신(谷神)' 시리즈는 형태의 거부가 다다른 침묵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강행복씨 禪판화 '日나들이'

禪의 정신을 판화로 표현해 온 강행복씨가 지난 13일~22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스페이스갤러리에서 갖고 있다. 강씨는 초대전 형식의 이번 전시에서 'Gate Gate Paragate' 등 선불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품들을 내놓아 일본 화단과 관람객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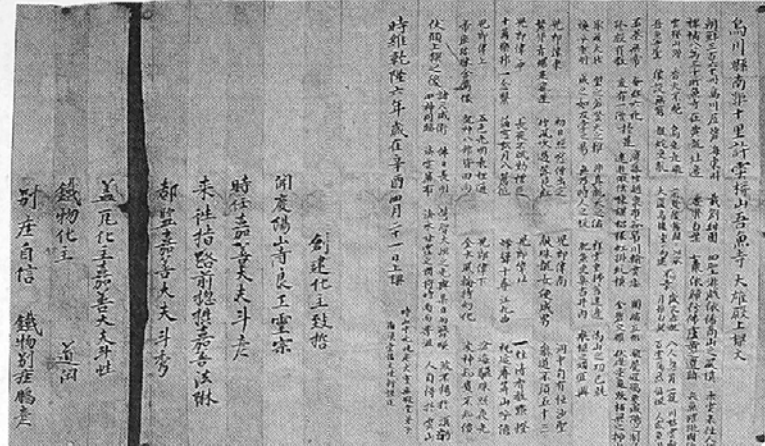
18일에는 주강현씨가 '우리 삶의 뿌리로서의 곳'을 25일에는 사진작가 전규환씨가 '뿌리를 깨는 사진'을 주제로 강의한다. 장소는 출판문화회관 대강당이며 회비는 2회 합쳐서 2만원, 선착순 1백명.

복지회관 기금마련 20~26일 서예전

부산 불교복지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서예전이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석주스님(철보사 조실)의 서예품을 비롯 중진작가 40여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우리얼 밝히는...’ 사진공개장차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의 뿌리와 실체를 연구하고 사진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진동호회 '우리 얼 밝히는 사람들'이 첫 공개강좌를 마련한다.



◇오사대 대응전 대본도 위에서 발견된 18세기 중엽의 상량문.

“18C중엽 전국사찰수 8만3천”

오사대 대응전 보수과정 상량문 발견...사찰·고을 수 밝혀

신라고찰 오사대(포항시 남구 오천읍 향사리)의 현존 대응전이 2백54년 전인 영조17년(1741년)에 중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포항시가 대응전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 대본도 위의 상량

문을 발견함으로써 알려졌다. 이 상량문은 효현스님이 작성한 것으로 중건 당시 전국에는 3백60곳의 고을이 있으며 사찰수는 8만3천여 이터라고 적혀 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응전을 중건하고 상량문을 쓴 효현스님은 무화당스님의

제자로 당호가 효계당이라 표기돼 있다. 전지크기의 이상량문에서는 또 이 절의 창건 당시(신라 진평왕때) 이름이 '항사사(恒沙寺)'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사란 이름이 붙여진 연유에 대한 설화도 기록돼 있다.

독을 불교계나 사학계 학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한학을 잘 하는 공무원중의 한 사람에게 맡겼다"고 밝히고 있어 관독의 정확성과 공신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연태 기자

영산재 장엄무대 '불 기회'

동희스님등 공연 ... 12월 3일 국립극장

이같은 기류 속에서 영산재를 무대화한 영산대작법 공연이 다음달 3일 오후 4시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당대의 여장 송암스님으로부터 40여년간 의식을 전수받은 동희스님이 영산재의 진수를 선보일 이 무대는 영산재법음연구회가 마련했다. 송암스님(중요인간문화재 50호) 구해스님(중요인간문화재)



◇동희스님

인간문화재)이 특별출연하고 김영동(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이에주(서울대교수)

민연옥(상명여대교수)씨와 범음대학스님 6명이 찬조출연, 무대를 한층 장엄하게 된다.

동희스님은 이날 무대에서 영산재의 15가지 주요대목을 공연한다. 도량을 돌며 잠든 대자연을 일깨우는 도량식으로 시작 인성, 기경, 옹호계, 가영, 명바라, 복장계, 천수바라, 도량계, 현좌계, 법고, 향화계, 향수나물, 사다라니, 축원화장 등이 그것.

해방동이 동희스님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펼치는 이 무대의 연출은 불교방송 박용기 위원이 맡았다.

운주사 홍보 아이디어 다채

송원전대 산업디자인연구소 세미나서

화순 운주사의 관광홍보 방안이 다채롭게 제시됐다.

광주 송원전대 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소장 이윤수)의 개소기념 '운주사 관광개발을 위한 디자인 제안' 세미나가 지난 10일 무등산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윤수교수는 '운주사 관광홍보물 중 인쇄매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교수는 "운주사의 불상과 석탑 등을 소재로한 포스터·브로슈어,

관광동선별 의미가 부여된 리플릿, 입장티켓용 소형 캘린더 등 인쇄물을 제작하고 전국 관광업소나 공항 등에 배포할 외 국인용 홍보물의 제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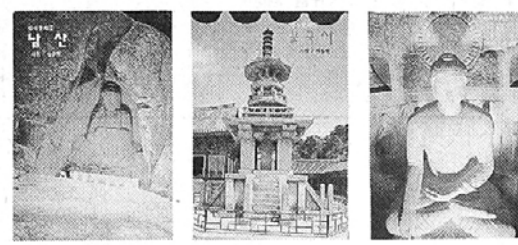
또 '운주사 관광인쇄물 개발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 손영일교수는 "나염을 이용한 소품 디자인, 도자기를 이용한 장신구, 목재를 이용한 소품 등의 관광 민예품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심시심 <37>

백옥경보다 나은 금강산

金剛影入半空搖 (금강영입반공요) 금강산 그림자 반공에 솟아 흔들리니  
遊客先愁滑石橋 (유객선수활석교) 나그네는 우선 미끄러운 돌다리 걱정  
蕭寺飄香風折桂 (소사표향풍절계) 산사의 나무끼는 향기, 바람 월계수 꺾고  
桃源種藥雨肥苗 (도원종약우비묘) 도원에 심은 약초, 비에 싹 살찌다  
俯臨海底龍精近 (부림해저룡정근) 바다 밑 굽어보면 용이 가까이 온다 시  
高步峯頭月不暹 (고보봉머리월부) 기하고, 걸어 오른 높은 봉우리 달이 멀지 않다  
天上帝京難白玉 (천상제경난백옥) 하늘나라 제석궁이 아무리 백옥이라도  
茲山方彼未曾鏡 (자산방비미증경) 이 산과 비교하여 더 풍요롭지도 못하리 (자산방비미증경)

윗 시는 기암(奇巖)산사의 시이다. 대사의 행적에 대하여는 자세히 전하는 것이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대사의 문집인 기암집의 서문에 서산대사의 적통이라 함에서 청허당과의 사제관계이었음을 이해하게 할 뿐이다. 산사의 시는 백 여수가 전하고 있는데 운수의 행각에서 영물적 서경이 돋보인다. 위의 시도 금강산에 산다는 제목으로 쓰여진 시다. 금강산의 높고 아름다움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할 수 있다. 첫 구에서 반공으로 솟아 든 산 그림자라 하였으니 그림자의 본체인 산의 위용을 한층 더 높이 부각시켰다 하겠다. 이 모습을 바라며 오르는 나그네는 우선 오를 길이 걱정된다. 매끄러운 돌다리가 걱정된다. 반공의 높이와 돌다리의 하개로 상하의 대칭 연을 이루는 도량식으로 시작 인성, 기경, 옹호계, 가영, 명바라, 복장계, 천수바라, 도량계, 현좌계, 법고, 향화계, 향수나물, 사다라니, 축원화장 등이 그것. 해방동이 동희스님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펼치는 이 무대의 연출은 불교방송 박용기 위원이 맡았다.



경주문화재 엽서 64매 제작

신라문화원, 안장현씨 사진에 상세한 해설  
경주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이 경주 일대의 문화재들을 담은 엽서 64매를 제작했다. 불국사, 시내, 남산, 석굴암, 안강지역 감포지역 등 6분야로 나눠 제작한 경주문화재 엽서는 안장현씨의 사진을 사용했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뱃따파리아 지음 장의 옮김

●신국판/284면/값 6,000원

●김인덕 지음/양장/376면/값 12,000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임현담 불교에세이

# 배움

부다를 사랑한 가톨릭의사 「삶」 사랑

조선·동아·한겨레 불교TV 등 유력 언론들은 이렇게 격찬했다

“가톨릭의사가 「삶과 죽음」의 화두로 불교성지 히말라야로 뿔뿔 들어갔다”

불교 산문 미학의 극치!

구도자적 닥터에겐 세상의 모든것들 그것이 미스캐트였건, 붓다였건 모두가 스승이었다

●매주, 지방간 등에 얽힌 진한 인간 이야기는 어느새 철학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원초적 욕심, 브리짓트 바르도, 죽은 김일성 등의 집현한 소재들은 이미 종교세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손바닥 크기 작은 책에 다룬 바는 우주까지 담겨 있었다...

불교서적 판매 집계 7·8월 1위 9월 2위

신국판/304쪽/6,000원

TEL:756-0262, 874-0263 FAX:873-8716